

이야기가 있는 대나무 정원

담양 향교리가보셨나요

앞으로는 관광제림이, 뒤로는 죽녹원이 위치한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몇해전까지만 해도 향교리는 노인들만 거주하고 있는 여느 시골마을이었다. 하지만 죽녹원이 관광지로 입소문을 타고, 대담미술관이 문화 명소로 알려지면서 점차 활기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마을 할머니들은 미술관의 도움을 받아 '화가'로 데뷔하기도 했다. 마을의 활기는 되찾았지만 곳곳에 버려져 있는 폐가 등 무언가 아쉬운 느낌이 감출 수 없었다.

향교리가 마을로 찾아온 미술인들로 인해 새옷을 입었다. 마을 곳곳에 예술이 깃들면서 '문화 향기'가 가득한 예술마을로 거듭나게 됐다.

특히 올해 열리는 '2015담양세계 대나무박람회' 기간 죽녹원 등과 함께 담양의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담양예술인의 집'은 마을 미술 프로젝트 '이야기가 있는 향교리 대나무 정원'과 미래(美來)이야기'를 최근 마무리지었다.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공공미술 사업으로 문화예술의 혜택에서 소외됐던 지역의 문화예술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진행돼 오고 있다.

담양예술인의 집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담양과 마을의 정서를 고려한 작품 4점을 설치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작가 대표인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씨를 비롯해 오상문(예술감독), 정명숙(기획), 김혁, 오창록, 윤준성, 류종원, 이민지씨 등 모두 8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했다. 수년간 향교리 주민들과 커뮤니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대담미술관도 협력기관으로 함께했다.

프로젝트명인 '이야기가 있는 향교리 대나무 정원'과 미래(美來)이야기'는 담양의 대나무 정원에 '아름다움이 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진시영 작가가 향교리 마을회관 옥상에 설치한

'향교리 대숲 속 빛의 하모니'는 마을의 낮과 밤을 수놓는 작품이다. 대나무와 무등산 입석대처럼 솟아오른 유리 모양의 직육면체 구조물을 설치한 뒤 안에 대나무를 고정하고 라인 LED 드로잉을 설치한 작품이다. 낮에는 조형적인 리듬이 느껴지고, 밤에는 길을 밝혀주는 조명으로 변신한다. 대나무숲, 관방천 등 주변과 어우러지는 색감이 인상적이다.

진시영, 류종원, 이민지 작가가 만든 '휴(休)'는 오래된 긴 벤치를 재구성한 작품으로 '휴식'과 '쉼'을 선물한다. 향교리 입구에 놓인 이 작품은 부드러운 원목을 올려서 편안함과 간결함을 표현했고, 아래 철판에는 함축적 문구인 '바람이 분다'와 감성적인 영어글귀를 새겨 넣었다.

오래된 폐가를 활용한 작품도 눈에 띈다. '향교리 대나무 정원'은 향교리 마을 중심부에 수년간 방치돼 있던 폐가를 예술로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기존에 있던 벽면과 전통문살 등을 살렸다. 앞으로 마을 주민에게는 휴식 및 문화체험 공간, 작가들에게는 레지던시 공간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마을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지는 작품들은 대나무정원 내에 전시된다.

'향교리 미래(美來)이야기'는 향교리 주민의 주택벽면을 활용한 마을 지도로, 주민과 작가들이 협업으로 만든 작품이다. 차가운 시멘트 벽면에 작가와 주민들이 그린 죽녹원 일대의 중요 명소와 주민들의 집을 아트타일 형식으로 만들어 붙였다. 특히 일반 벽화와 달리 마을의 변화되는 모습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더할 수도 있다.

진시영 작가는 "공공미술은 설치 후 보존과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작 전부터 지속적인 활용가능성과 프로그램 컨텐츠 개발을 계획하면서 진행했다"며 "앞으로 주민들과 담양에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신선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진시영 작
'향교리 대숲 속 빛의 하모니'



'향교리 대나무 정원'



'쉼'을 선물하는 벤치 '휴(休)'

한·중 문화예술 교류 활발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북경99미술관 교류전

설박·윤준영 등 그룹전도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 북경창작센터를 중심으로 한중문화예술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입주작가 및 북경99미술관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지역 작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한·중 국제예술교류전 '문화를 뛰어넘어 세계를 초월하여 : Dialogue'가 오는 30일부터 2월13일까지 중국 북경99미술관 제3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박웅규 북경창작센터 매니저와 정세우 북경99미술관 부관장이 기획한 전시로, 한국 작가 20명, 중국 23명 등 모두 42명이 참여한다.

특히 한국 참여작가 20명 중 12명이 광주시립미술관 레지던시 참여 작가로 구성돼 있다. 북경창작센터 제7기 입주작가 설박, 윤준영, 정성준, 황정후씨와 북경창작센터 이전 입주 작가

인 권승찬(6기), 윤일권(4기)씨가 참여한다. 또 박웅규씨를 비롯해 광주시립미술관과 북경99미술관 국제레지던시 교류 프로그램 참여 작가인 김성결, 양나희, 이한범씨가 전시에 함께하며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였던 이창범, 이하윤씨도 이번 전시에 작품을 선보인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난해 12월 북경99미술관과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 등 상호 교류를 위한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9년 말 개관한 북경창작센터가 한중 문화예술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온 것이 계기가 됐다.

이번 전시와 별개로 오는 25일부터 3월7일까지 북경 798부근에 있는 'Kong Space 갤러리'에서 설박, 윤준영, 황정후, 권승찬씨의 전시가 열린다. 3월12일부터 4월12일까지 북경 '치앙아트센터'에서 설박, 윤준영씨가 중국 작가들과 함께 작품을 선보이는 그룹전이 개최될 예정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북경99미술관 국제레지던시에 참여한 김성결(왼쪽부터), 양나희, 이한범씨.

네오피ل 정기연주회...예술 꿈나무들 협연

30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지난해 창단 연주회를 가졌던 네오피ل 하모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30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예술 꿈나무들이 협연자로 참여, 실력을 뽐낸다.

호남예술제에서 금상을 수상했던 서정우(문산중 3년·피아노)군을 비롯해 피아노의 김소휘(송일중 3년), 이혜진(광주중 3년), 송민정(송일중 3년), 하승화(광주예고 1년)양이 협연한다. 또 클라리넷의 박윤서(광주예고 1년), 바이올린의 박지우(광주송원초 5년), 플루트의 유지주(목포대 교육대학원 재학중)가 무대에 선



다. 연주 레퍼토리는 모차르트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플루트협주곡 1번, 1악장,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2번' 1악장,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3번' 1악장, 멘델스존의 '피아노협주곡 1번', 모차르트의 '바이올린협주곡 4번', 베버의 '클라리넷협주곡 2번' 등이다.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유건우(광주시립교향악단 부수석·사진)씨가 지휘를 맡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작가와 주민이 함께 만든 '향교리 미래(美來) 이야기'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연말 송년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장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마감시공
4. 옥상시공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팔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달린트 이영후

(주)이팔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팔엘지.kr